

하인스 워드 모자 오찬시 기념품 준비계획(안)

2006. 3.27, 문화관광부

□ 기념품(안)

○ 백제금동대향로(복각품)

- 국보 제287호, 62cm x 19cm, 11kg, 1993년 출토
- 백제인의 이상세계를 아로새긴 우리 정신문화의 진수임. 하인스 워드가 특히 한 국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
- 몸체, 뚜껑, 봉황, 받침대 등 4부분으로 구성

○ 양주동 시 「어머니의 마음」 서예작품화하여 족자로 제작

-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

□ 기념품 준비

○ 백제금동대향로

- 백제금동대향로 하단부에 증정자 및 증정일 명기

○ 서예작품

- 작가 선정 : 시의 제목을 고려하여, 여성작가 중 중견작가로 함
 - 신영순(59세), 이지연(70세), 지남례(60세), 이수덕(80세)
 - ※ 국립현대미술관 전문가는 신영순 작가를 추천
- 작품 후반부에 증정자, 증정일, 작가이름(낙관)을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임

□ 검토사항

- 증정자 명의 : 대통령 또는 문화관광부장관, 하나는 대통령, 다른 하나는 문화관광부장관 명의로 하는 것도 한 방법
- 증정방법
 - 대통령께서 증정하시거나, 문광부장관이 증정

□ 소요 예산 : 약 3,000천원(체육국 예산)

- 대향로(실물크기) : 1,332천원(제작원가)
- 서예작품 : 서예작가 사례금 약1,200천원, 표구 및 케이스 350천원

<견본> ① 백제금동대향로(복각품)



② 양주동 시 「어머니의 마음」 서예작품화 하여 족자로 제작

< 세로 시안 1 > 헌사 없는 양식

< 세로 시안 2 > 헌사 있는 양식

어머니의 마음

양주동

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
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
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
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.
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.
어머님의 희생은 가없어라.

어려선 안고 업고 열러 주시고
자리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
앓을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
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
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오.
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.

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
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
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
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
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오.
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.

어머니의 마음

양주동

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
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
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
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.
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.
어머님의 희생은 가없어라.

어려선 안고 업고 열러 주시고
자리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
앓을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
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
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오.
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.

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
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
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
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
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오.
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.

어머니의 사랑이 지극한
지랑스러운 하인스 워드 선수에게 드립니다.

2006년 4월 4일

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

어머니의 마음

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
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
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
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.
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.
 어머니의 희생은 가없어라.

어려선 안고 업고 열러 주시고
 자리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
 앓을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
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
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오.
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.

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
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
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
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
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오.
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.

- 양주동-

어머니의 사랑이 지극한
 자랑스러운 하인스 워드 선수에게 드립니다.

2006년 4월 4일

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

어머니의 마음

양주동

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
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
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
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.
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.
 어머니의 희생은 가없어라.

어려선 안고 업고 열러 주시고
 자리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
 앓을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
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
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오.
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.

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
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
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
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
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오.
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.

어머니의 사랑이 지극한
 자랑스러운 하인스 워드 선수에게 드립니다.

2006년 4월 4일

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

어머니의 마음

양주동

희생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
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
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
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.
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.
 어머니의 희생은 가없어라.

정성 어려선 안고 업고 열러 주시고
 자리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
 앓을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
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
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오.
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.

사랑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
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
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
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
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오.
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.

어머니의 사랑이 지극한
 자랑스러운 하인스 워드 선수에게 드립니다.

2006년 4월 4일

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

어머니의 마음

양주동

희생

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
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
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
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.
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.
 어머니의 희생은 가없어라.

정성

어려선 안고 업고 열러 주시고
 자리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
 앓을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
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
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오.
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.

사랑

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
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
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
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
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오.
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.

어머니의 사랑이 지극한
 자랑스러운 하인스 워드 선수에게 드립니다.

2006년 4월 4일

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